

공무원의 행복한 은퇴를 위한 준비

Vol.19



전 세계적인 고령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득 기간의 감소와 소비 기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곧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기반으로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확대, 끝없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늘어나는 노후 의료비 등은 과연 노후가 충분히 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노후 준비 현실과 실질적인 노후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은퇴 준비의 현실

01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증가

공무원의 노후 자금의 안전판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표1-1) 24년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액 자료에서 보듯이 적자의 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공무원의 정체로 인한 기여금의 납부자 수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수가 많아지는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역삼각형 형태의 적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1-1)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액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상)
공무원연금 기여금 (A)	122,513억	130,013억	133,171억	136,676억	140,062억	145,407억
연금 급여 (B)	145,318억	155,488억	166,361억	181,078억	201,476억	219,458억
차이 (B-A)	-22,805억	-25,475억	-33,190억	-44,402억	-61,414억	-74,051억

출처 : 대한민국 사회보험, 국회예산정책처, 24.07.04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보장하는 연금이지만,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처럼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동결되거나 적자 폭 확대된다면 차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향후 연금액 축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 공무원 노후 자금 준비의 현실

2023년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외에 별도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무려 2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그림1)에서 보듯이 1순위는 적금/예금이 43.6%로 가장 높았고, 주식/펀드 등은 20.6%, 연금 등 보험상품은 18.9%, 부동산은 13.6% 순이었습니다. 주로 단기자금 운영인 적금/예금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03 실질적 노후연금 준비의 부족

공무원의 예금·적금 위주의 실질적 노후연금 준비의 부족 노후 재무 생활 준비 방법 1순위는 적금/예금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주식/펀드 등 20.6%, 연금 등 보험상품 18.9%, 부동산 13.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기성, 예·적금 상품 위주의 저축 상품 위주로 운영되어 은퇴연금 자산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18.9%로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무원 노후생활 대비방법

(단위: 명, %)

구분	합계 (응답인원)	연금외에 준비없음	노후생활 대비방법					
			소계	주식, 펀드 등	예금, 적금 등	보험상품(연금 등)	부동산	기타
인원	940,894	197,210	1,189,181	245,367	517,903	224,231	161,994	39,686
비율	100%	21%	100%	20.6%	43.6%	18.9%	13.6%	3.3%

출처 : 2023년 제12차 공무원총조사보고서

이렇듯 과거 공무원연금으로만 경제적 만족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현실은 공무원의 민간 대비 실질적인 소득 부족, 공무원연금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 준비 부족, 노후의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노후를 위한 별도의 연금 준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04 노후 의료비의 부족, 간과할 수 없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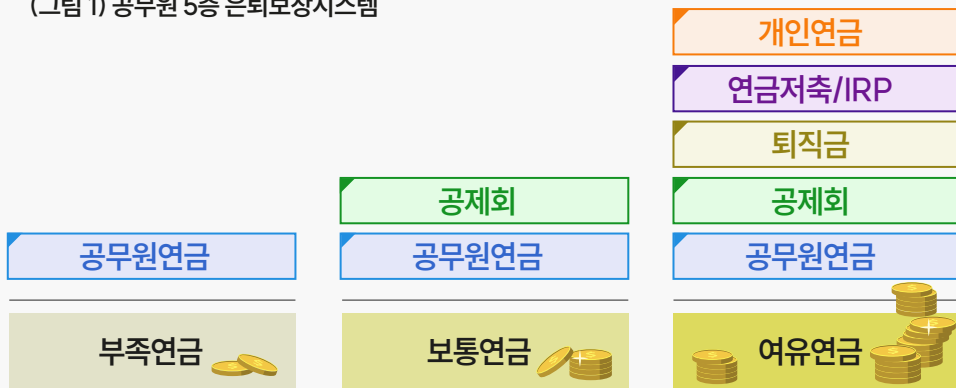
은퇴 후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며, 예상치 못한 질병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건강보험 통계 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자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8조 원 중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퇴직 이후의 노후 경제 안정을 위한 대비책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충분한 의료보험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든든한 공무원만의 5층 공무원 은퇴 보장 시스템을 준비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3층 은퇴 보장 시스템을 권고하지만, 공무원의 재무 특성을 고려하여 5층 공무원 은퇴 보장 시스템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 재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림 1) 공무원 5층 은퇴보장시스템



공무원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살펴보면 이미 가입된 공무원연금, 공제회, 퇴직수당이 있으며, 민영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축 계좌,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5층 공무원 은퇴 보장 시스템의 특징은 공무원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안정적 운영과 연금 상품 신규 가입 위주가 아닌 기존에 이미 가입된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연금 자산으로 운영하고 민영 금융자산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층 은퇴 보장 시스템과 달리 5층 공무원 은퇴 보장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기존 목돈 자산으로 활용하던 것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유 자산으로는 공제회 및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특징은 추가적 연금 자금을 투입할 필요 없이 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간 세제 혜택, 추가 이율 제공, 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층 보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제회를 적극적으로 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회는 과거 목돈마련저축으로 활용하였으나 2015년 이후 분할연금도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연금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자유로운 납입 및 증감이 가능하며,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 제공과 연금보험과 같이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서 중도 탈퇴 시 원금 보장과 만기 수령 시 세제 혜택으로 가입 기간별 비과세와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3/ 노후간병비를 줄이는 생애보장을 준비하자.

공무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이러한 안정적인 노후 계획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3년 기준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진료비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진료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MRI, CT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나 최신 치료법에 대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 단체의료비보험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퇴직자단체의료보험의 경우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시중 실손의료보험보다 50%가 저렴하며 배우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의료비 준비로 손색이 없습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안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과거 공무원에게 당연시되던 '정년 보장과 안정적인 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심화, 물가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노후 의료비의 증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노후 준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에게 맞는 퇴직 전 은퇴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호

KMA 시니어랩 전문위원
(국제공인재무설계사)

KMA 시니어랩

초고령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시니어 대상 경력개발사업, 시니어 대상 정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